



보도자료



보도시점 사진 10:30 이후 배포 2025. 10. 2.(목)

조달청-국민권익위, 공공조달 청렴문화 확산 '상호 협력'

-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 청렴교육·홍보 활성화
- 연간 225조원 거래 규모 ... GDP 9% 차지하는 공공조달시장의 청렴성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0월 2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 및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이번 협약은 조달기업인 민간영역에도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교육·홍보를 활성화하여 기업 윤리경영 자율실천 확산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각 산하 교육기관¹⁾에서 운영 중인 반부패·청렴 교육과목에 각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를 서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를 통해 조달기업 등 이용자들에게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렴교육·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24년도 기준 연간 22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며, 그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45조원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만여 조달기업들과 7만여 수요기관들이 이용 중이다.

1)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공공조달역량개발원(경북 김천 소재)'을 산하에 두고 있음

백승보 조달청장은 “그간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정 조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와의 활발한 협조와 상호 교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업무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공공조달의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병수 (042-724-7007)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2-724-7010)

